

# KIA, '1~2점'에 운다

### 타격 뒷심 부족... 원투 펀치 내고도 한화에 2연패 12승 13패 중 1점차 패배 4번, 2점차 패배 4번

'1점'이 KIA 타이거즈의 2018시즌 성적을 바꾼다. 지난 26일 KIA 선수들은 한화 이글스와 홈경기를 치렀다. 이날 선수들은 평소와는 다른 일정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평소에는 일부 선수들의 특별 타격 훈련이 먼저 진행된 뒤 야수조가 그라운드에서 뛰고, 이어 투수조가 외야로 나가 몸을 푸는 것으로 공식적인 훈련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날은 선수단 전원이 동시에 외야로 집결했다. 선수들은 동그랗게 서서 미팅을 한 뒤에 야 훈련을 시작했다. 선수단 전원이 선 이는 정회열 수석코치였다. 정 수석코치는 미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의무를 다한 뒤 권리를 행사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웃었다. 정 수석코치는 "투타의 밸런스가 좋지 않다. 최근 1~2점 차로 쉽게 지는 경기들이 많았다. 공 하나, 플레이 하나가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또 지금의 1승이 나중에 시즌이 끝날 때는 훨씬 더 큰 가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KIA는 한화전 4연패

를 기록했었다. 대전 원정에서 시즌 첫 싹쓸이 3연패를 당했고, 헛타가 출격했던 지난 25일에도 8회말 2-2 동점까지는 성공했지만 마무리 김세현이 흔들리면서 2-3 패를 당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역시 '1점'이 문제였다. 이날 선발로 나선 양현종은 8회까지 8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완벽하게 한화 타선을 봉쇄했다. 그러나 1-0의 리드에서 9회 마운드에 오른 뒤 상황이 급변했다. 양현종이 첫 상대 호잉에게 투 스트라이크를 잡아내며 완봉승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았지만 3번째 던진 공이 중전안타가 되고 말았다. 김태균을 우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우는 했지만 하주석의 안타와 양성우의 볼넷으로 1사 만루. 대타 이성열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지성준에게 던진 초구가 2타점 적시타가 되고 말았다. 설상가상 폭투까지 나오면서 1-3까지 점수가 벌어졌다. 분위기가 몰린 KIA는 마지막 9회말 공격에 나섰지만 추가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완봉승을 노리던 양현종은 완투패라



한화와의 홈경기가 열린 지난 26일 KIA 선수들이 훈련에 앞서 챔피언스필드 외야에 모여 미팅을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1점을 지키지 못한 경기. 마무리 김세현의 난조 속 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번번이 눈앞에서 승리를 놓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도 KIA에게 승리를 가져갈 기회는 많았다. KIA 타자들이 10개의 안타와 3개의 볼넷을 얻어냈고, 상대의 실책도 나왔었다. 그러나 홈을 밟은 주자는 단 한 명에 그쳤다. 26일 1-3패까지 KIA는 12승 13패를 기록했다. 이 중 1점 차로 승리를 내준 경우가 4번, 2점 차로 패배 역시 4차례가 기록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해 같지 않은 타선의 뒷심 탓에 끝까지 가던 KIA의 야구가 실종됐다. 올 시즌 선제실점을 한 경기에서 KIA의 승률은 3승 8패로 0.272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전체적인 타선의 힘이 떨어진 것도 아니다. 26일 현재 KIA는 0.295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팀 타율 1위에 랭크됐다.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경기도 4차례에 이른다. 하지만 극과 극을 달리는 타선에 KIA의 표정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다. 한화전 5연패라는 쓴 보약을 마신 KIA가 '1점'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아시안게임서 100m 9초대 진입”

### 김국영 국제대회 5개 연속 출전

한국을 대표하는 스피린터 김국영(27·광주광역시청)이 5개 국제대회에 연속 출전하며 아시안게임 남자 100m 메달 획득의 꿈을 키운다. 김국영은 27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김국영은 29일 히로시마 그랑프리 국제육상경기대회를 시작으로 시즈오카 그랑프리(5월 3일), 오사카 골든그랑프리 월드챌린지대회(5월 20일), 대만오픈(5월 25일), 후세 국제스프린트대회(6월 3일)에 연속 출전한다. 그는 “올해 8월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모든 스케줄을 맞춰가고 있다. 5월 국제대회 출전을 통해 비시즌부터 이어온 훈련성과를 높이고, 기록과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국영은 올해 아직 100m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지난 12일 나주에서 열린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는 200m에 출전해 20초99로 우승했다. 400m 훈련에 집중하며 지구력을 키운 김국영은 200m를 뛰어 훈련 효과를 확인하는 데 만족했다. 100m 훈련은 16일에 시작했다. 이제 국제무대에서 실전 점검을 한다. /연합뉴스



김국영은 “5월에는 경기를 통해 스피드와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6~7월 대회부터 기록경신을 노릴 것”이라고 했다. 5월 3일 시즈오카 대회에서는 200m에 나선다. 가장 기대되는 대회는 오사카 골든그랑프리 월드챌린지 대회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특급대회로 저스틴 개틀린(미국) 등 세계랭킹 10위권 선수들이 초청받는데, 김국영은 대회 주최측의 특별초청으로 100m 출전권을 얻었다. 김국영은 “8월 아시안게임은 올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하는 대회이고, 모든 훈련과 경기출전을 거기에 맞춰오고 있다”며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내면서 올해 반드시 9초대 진입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피츠버그 합류 강정호 재기 성공할까

### 美 비자 발급

선수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던 강정호(31)에게 극적으로 메이저리그 복귀 길이 열렸다. 피츠버그 파이리츠 구단은 27일 강정호가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재입국하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정호는 국내에 머물던 2016년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범인으로부터 유죄(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를 선고 받았다. 강정호는 계속된 음주운전 이력 탓에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거절됐고, 메이저리그에서 뛰지 못한 채 2017시즌을 통째로 날렸다. 자칫 선수 인생마저 끝날 수 있는 위기에 몰렸던 강정호는 장기간의 시도 끝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벼랑 끝에서 탈출했다. /연합뉴스



강정호는 이미 미국으로 건너가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그라운드를 밟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건은 역시 실전 감각이다. 강정호는 비자 발급 지연으로 공백기가 1년이 넘었다. 이미 기량은 검증된 만큼 피츠버그 구단에 인내심을 갖고 강정호가 예전 기량을 되찾는 데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왼쪽 무릎 부상 구자철 국내서 재활 전념

왼쪽 무릎을 다친 한국 축구대표팀의 미드필더 구자철(29·아우크스부르크)이 조용히 귀국해 국내에서 재활에 전념한다. 구자철의 에이전트사는 27일 “구자철 선수가 어제(26일) 조용히 입국했다”면서 “소속팀이 한국에서 재활 치료에 전념하도록 배려했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자철은 지난 23일 열린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18분 왼쪽 무릎을 다쳐 교체됐고, 미세한 인대 손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검진에서 2주 진단을 받은 구자철은 신태용 감독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는 5월 14일 이전 회복



이 가능한 전망이다. 신태용 감독도 앞선 인터뷰에서 구자철의 몸 상태를 묻는 말에 “구자철이 시즌을 치르느라 지쳐있지만 월드컵을 위해 휴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며 월드컵 국가대표로 발탁할 것임을 암시했다. /연합뉴스



광주에 온 '마린보이' 태극마크 향해... 27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8 국제대회 수영국가대표 선발대회' 남자 자유형 400m 예선에 출전한 박태환(인정시청)이 힘차게 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허방수**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관공식 옥상시공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 후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파란정원, Step 2: 단열복합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패턴카탈로그에서 만나보세요

한국방수방수연구소 2014~2016~2017년 3년 연속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5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물이 시든 틈과 번져 들어가지 않는 실험 동영상 참조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이너 잔 멘디니와의 플라보 디자인!
- 외벽에 못 임하지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http://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